

다시 푸는 경서

수심결(修心訣) ⑥

問汝言頓漸修兩門 千聖軌範也
문여언돈오점수양문 천성개찰야
悟既頓悟 何假漸修 修若漸修
오기돈오 하가점수 수약점수
何言頓悟 頓漸二義 更爲宣說
하언돈오 점수이의 경위선설
令絕餘疑
영절여의

에 심광(心光)을 돌이켜서 자기의 본
성을 보면, 이 성품에는 본래 번뇌가
없고, 번뇌가 없는 지혜의 성품이 본
래 스스로 갖추어져 있어서 모든 부처
님과 더불어 털끝만큼도 다르지 않기
때문에 돈오라 하는 것이다. 점수라는
것은 비록 본래의 성품이 부처와 다르
지 않음을 깨달았으나 오랜 세월의 습
기(習氣)는 갑자기 제거하기 어려우므
로 그 깨달음에 의지해 닦고 점점 익
혀서 공을 이루고, 또 오랜동안 성인
의 자질을 잘 길러나가야 성인이 되는
것이므로 점수라 하는 것이다. 비유하
자면 어린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모
든 기관이 갖추어져 어른과 다르지 않
지만 그 힘이 충실하지 못하므로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야 비로소 성인(成
人)이 되는 것과 같다.

물었다. "스님께서는 돈오와 점수의
두 문이 모든 성인이 밝은 길이라
하셨습니다. 깨달았다면 이미 돈오한
것인데 어째서 점점 닦아야 하며, 그
닦음이 만약 점점 닦아야 할 것이라면
어째서 돈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돈
오와 점수의 두 가지 뜻을 다시 설명
하여 남은 의심을 끊게 해주십시오."

答頓悟者 凡夫迷時 四大爲身
답돈오자 범부미시 사대위신
妄想爲心 不知自性 是真法身
妄想爲心 不知自性 是真法身
망상위심 부지자성 시진법신
不知自己靈知 是真佛也 心外免佛
不知自己靈知 是真佛也 心外免佛
부지자기영지 시진불야 심외면불
波波浪浪走 忽被善知識 指示入路
파파낭낭주 홀피선지식 지시입로

問作何方便 一念迴機 便悟自性
문작하방편 일념회기 변오자성

물었다. "어떤 방편을 써야 한 생각
의 기를 돌려 자성(自性)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깨달음에 의지해 닦고 점점 익혀서
성인의 자질을 길러가는 것이 점수

一念迴光 見自本性 而此性地
일념회광 견자본성 이차성지
原無煩惱 無漏智性 本自具足
원무번뇌 무루지성 본자구족
即與諸佛 分毫不殊 故云頓悟也
즉여제불 분호불수 고운돈오야
漸修者 雖悟本性 與佛無殊
점수자 수오본성 여불무수
無始習氣 卒難頓除 依悟而修
무시습기 졸난돈제고 의오이수
漸顯功成 長養聖胎 久久成聖
점현공성 장양성시 구구성성
故云漸修也 比如孩子 初生之日
고운점수야 비여해자 초생지일
諸根具足 與他無異 然其力未充
제근구족 여타미이 연기력미충
願經歲月 方始成人
파경세월 방시성인

答只放自心 更作什麼方便 若作方便
답지자유심 경작십마방편 약작방편
更求解會 比如有人 不見自眼
경구해회 비여유인 불견자안
以謂無眼 更欲求見 既是自眼
이위무안 경구구견 기시자안
如何更見 若知不失 即爲見眼
어떻게더 보겠는가 若知不失 即爲見眼
如何更見 若知不失 即爲見眼
어떻게더 보겠는가 若知不失 即爲見眼

대답했다. "오직 그대 자신의 마음
인데, 다시 무슨 방편을 쓴다는 말인가.
만약 방편을 써서 다시 알리고 한다면
그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자신의
눈을 보지 못하고 눈이 없다고 하면서
다시 보려고 하는 것과 같다. 이미 자
신의 눈인데 어째서 다시 보려고 하는
가. 만약 잃지 않았음을 알면 그것이
곧 눈을 보는 것이다. 다시 보려는 마
음이 없다면 어찌 보지 못한다는 마음
이 있겠는가. 자신의 신령스런 앞도
역시 그와 같아 이미 자신의 마음인데
어째서 알리고 하는가."

김원각(시인·역경위원)

혜정스님 (법주사 울주)

벌써 입추(立秋)가 되었습니다. 아직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는 있지만 며칠
후 돌아올 말뚝이 지나면 더위도 한풀
뀌겠죠. 무더위 속에서는 '나'를 잊기
가 쉬운 노릇이죠. 더위에 짜증내고, 예
(禮)도 무시하기 일쑤한 말입니다.

이 '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늘 '나'와 함께 있으면서도 증
생들은 '나'의 참모습을 모르고 살아갑
니다.

어떤 것을 '마음'이라고 합니까. 마음
속에는 우주법계 삼라만상이 다 들어 있
습니다. 우리는 그 마음을 알아내야 합니
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바로 내 자신이
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을 모르고는 내 근본을 알지 못
하고, 더 나아가 모든 것을 알기 힘습니
다. 자기를 모르는데 자신의 생명을 지키
기 위해 애를 쓴다고 한들 무슨 보람이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마음'의 정체를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불교의 가르침은 '마음'
이 핵심입니다. 부처님 말씀의 골조가 이
'마음'이고 수행의 근간이 되는 것도 이
'마음'입니다.

요즘 '신창원 신드롬'이 젊은 이들 사
이에 대단한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고 합
니다. 특히 10대 청소년들은 신창원을 영
웅시할 뿐만 아니라 신창원이 잘될 때
있었던 티셔츠며 반바지, 심지어는 그가
읽었던 만화책까지 불타나게 팔리고 있
다고 하지 않습니까. 신창원은 살인강도
범으로 재판을 받고 수감 중에 발육해 2
년3개월 만에 잡혀 그동안 여러 사람들
을 난감하게 했는데도 말입니다.

신창원의 일거수일투족이 우리 사회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은 어느 것이
선(善)이고, 악(惡)인지를 판단하지 못하
는 혼돈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도 혹시 '신창원이가 조금 더 있
다가 잡혔으면...' 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종생의 성내 마음이 이같은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자라 온 환경이
열악하고 불우했다 하더라도 한 생각을
바로 다스릴 줄 알았다면 신창원도 없었
을 것이고 '신창원 신드롬'도 없었을 것
입니다.

본래 마음자리는 청정무구합니다. 그리
고 본래 마음자리는 그 마음이라는 것
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생
이어서 마음을 움켜쥐어 8만4천 번뇌와 망
상을 불러 일으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마음'을 다스려야
할까요. 마음을 찾아가는 방법 중의 하나

가 참선입니다. 참선을 통해 마음을 밝힐
수 있습니다. 불자들은 아마 이 말을 너
무나 많이 들어 질리고 식상해 할지 모
르겠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빼놓고 불
교를 말할 수 없는 것처럼 '마음'을 밝히
는데 참선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참선을
했다면 허수아비와 다를없습니다.

나는 19살 때 수덕사에서 출가해 행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수덕사는 경하·만
공선사로 이어지는 한국 선의 본산이죠.
만공선사의 선맥은 보월·금오 선사로 이
어지는 덕숭산문의 거대한 선맥을 형성
하고 있기도 합니다. 나는 그 금오선사를
은사로 득도, 선(禪)과의 인연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금오 스님은 평소 "중은 책을 보는
안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처음에는 무
슨 뜻인지 알지 못 했죠. 당시 책 읽기를
좋아했던터라 글씨가 큼직한 경책을 달
빛에서도 읽을 수가 있었기에 달이 밝으
면 법당 위에서 경 공부에 열중하고 있

- 약 · 1933년 7월 전북 정읍 출생
· 1967년 경남대 종교학과 졸업
· 1963년 금오스님을 은사로 득도
· 1972년 조계종 중앙종회
부의장 역임
· 1977년 조계종 총무원장 역임
· 1962년~83년 제 1~8대
중앙종회 의원 역임
· 1976년~77년 법주사 주지
· 현재 법주사 울주



"만법이 마음에서 일어나니
어려움 이겨내는 지혜도
마음공부 통해야 얻어요"

있는데 이를 본 금오 스님이 말씀하셨습
니다. "글 읽기 좋아하는 놈은 종노릇이
어렵다."

금오 스님은 선종 본래의 사상인 '불립
문자 경성성불(不立文字 見性成佛)'을
말씀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나는 뒷날
이를 깨닫고 책을 불살라 버리고 참선에
몰입했습니다.

마음 밖에서 부처를 찾는 사람은 '연목
구어(緣木求魚)'라 나무에 올라 물고기를
구하려는 것과 같은 것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불교에 귀의한 것은 참으로 우연
의 일이었습니다. 나는 전라북도 정읍의
선비집안에서 태어나 정읍에서 남부럽지
않게 살았습니다. 마음 혼잡이었던 조부
의 영환으로 청년 시절에는 책에 파묻혀
살았죠. 인도주의 작가들이 쓴 소설을
비롯해서 각종 소설류를 다지는대로 읽
었습니다.

그 즈음 6·25가 터지고 세상은 그대
로 삶과 죽음이 맞닿은 현상이었습니다.

휴전이 되고 먹고 살기가 힘들어진 사람
들은 길거리에 잡지책을 많이 가져다 놓
고 팔았는데 거기서 월간(불교)이라는
잡지책을 발견하고 한 권을 사 밤을 새
워 읽었습니다.

책을 읽다 보니까 생(生)과 사(死)의
의문에 대한 내용이 눈길을 끌었어요.

생종하처래(生從何處來) 생은 어디를
좃아 왔으며

사향하처거(死向何處去) 죽음은 어디
를 향해 가는가.

생아일편부운기(生也一片淨雲起) 생은
곧 한 조각 뜬 구름이 일어남이요.

사야일편부운멸(死也一片淨雲滅) 죽음
은 한 조각의 뜬 구름이 사라짐과 같나
니라.

어떻게 표현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만 가슴 한 구석에서 평하게 물밑 듯이
전혀져 왔습니다. '생은 어디를 좃아 왔
으며, 죽음은 어디를 향해 가는가' 라는
구절이 날이 갈수록 가슴을 파고 들어
며칠 동안 그 구절을 생각한 끝에 입산

이제는 집에서도 온 가족이 손쉽게 법회를!

가정법회

모든 불자들을 위한 가정법회 안내서

삼귀의·반야심경 봉독·5계 수지문 낭독·
찬불가·성구 및 해설·발원문·사홍서원



신행활동에 도움을 줄뿐만 아니라 삶의 지침이 되고 교훈이 될만한 내용을
아함부경전에서 가려뽑은 성구와 그 의미를 드러내주는 해설,
축원이나 감사는 물론 각종 행사나 절기 등 일상생활에서 부딪치는
여러 가지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작성된 발원문,
은 가족이 날짜나 요일을 정해놓고 혹은 특별한 날에 가정법회를 진행한다면
훌륭한 불자가정은 물론 삶의 지혜와 교훈, 삶의 활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학중 편저/신국판/350쪽/값 10,000원

중국과 대만에서 커다란 반향을 일으킨
선학총서 첫 번째 권

불교와 유학

불교와 유교, 동아시아 사상계의 가장 큰 충돌,
그리고 중국화된 불교와 불교화된 유교!



불교와 유학은 장구한 역사 속에서 상호간의 투쟁, 배척, 흡수, 융합
등의 과정을 겪게 되는데, 이 책은 바로 이 양자의 관계를
정확한 관점과 명쾌한 논리로 설명하고 있다.
즉 인도에서 발생한 불교와 중국에서 발원한 유학이 갖는
각각의 특징, 불교의 중국화 과정에 유학이 미친 영향,
역으로 중국의 유학에 불교가 끼친 영향, 그리고 이러한
영향들의 결과 및 의의 등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다.

賴永海 지·김진무 역/신국판/363쪽/값 12,000원

알기쉬운

한문해석법

현대 한문해석법의 완성과 반야심경에 대한
최초의 문법적 분석



불교경전 번역의 새로운 지평을 연다!
이 책은 한문의 기초부터 한시는 물론 허시에 이르기까지
한문해석을 위한 한문 문장의 구조와 문법을 총정리한
초보자를 위한 한문입문서이다. 특히 반야심경을 현대의
한문해석법에 문법적으로 적용하여 국내 최초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문장분석과 해석을 시도하고 있는 점이 돋보인다.

심재동 지/신국판/383쪽/값 12,000원

初發心自警文

누구나 쉽게 공부할 수 있게 꾸민

초심자를 위한 안내서

번역 및 자해난은 물론 원문에 토를 달고
원문 해석의 순서와 방점을 붙여 누구나
쉽게 읽고 해석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해공 편역/신국판/136쪽/값 4,500원

1999년도

불교서적
종합목록

현재 유통되고 있는 불교서적을
총망라한 국내 유일의 종합정보지.

전 서적에 대한 내용별 분류를 시도하였으며
전체목록 색인판과 출판사별 색인판을 두어
목표이용의 편의성을 도모하였다.

가까운 불교서점에 가지거나 운주로 연락주시면
(우편발송비 2,000원 동봉)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